

서울 ADEX 2021 개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이 10월19일부터 23일 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8개국에서 440개 업체가 참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우주개발 관련 장비, 유·무인 복합체계, 소형 레이저 무기 등 첨단 신기술을 선보여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신개념 교통 시스템인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국방부는 별도 홍보관에서 '스마트 국방혁신'을 주제로 우리 군이 운영하는 공중(43종)·지상(17종)·해양(12종) 무인체계 72종을 전시해 스마트 군대로 진화하는 노력을



소개하는 동시에 국내 방산업체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또 오만·이집트·파키스탄과의 국방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미국·인도·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과 국방장·차관 양자회담을 여는 등 활발한 군사외교를 펼쳐 군사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일반 관람객에게 행사장을 오픈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 기간 내내 펼쳐진 시범·공예비행 물론 제8기 국민조종사 비행체험·임명식, 공군참모총장배 드론 종합경연대회 등이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12월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두 나라가 추진해온 각종 현안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서울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먼저 상호 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에 대한 연합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고, 두 나



는 모든 능력을 활용해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도 굳건히 했다. 두 장관은 SCM에서 주한미군이 여전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또 고도화하는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의 공동 주최로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개최됐다. 행사 개막을 앞두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대한민국이 1991년 유엔에 가입한 뒤 30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PKO) 특별위원회 회원국 76개 국가의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유엔 운영지원국(DOS)과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 그리고 평화활동국(DPO) 사무차



장들도 회의 진행을 위해 직접 참석했다. 이를 통해 평화유지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회의는 '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제 시했다. 그리고 평화유지구상을 바탕으로 4개 세션이 진행됐다. 7일에는 '평화의 지속' 및 '파트너십, 훈련,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8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임무수행능력'과 '민간인 보호 및 안전'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4개 영역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여 의지와 추진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제 22회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과 연계해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로 향한 항공우주력의 도약'을 주제로 10월 18일 열린 제22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이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민·관·군·산·학·연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와 각국 공군 지휘관·대표단 등 2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행사는 박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서울 장관, 임혜숙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축사,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 영상 기조연설, 세션별 발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션별 발표는 1·2부로 나눠 '우주경쟁 가속화와 국방우주



력 발전' '민·관·군 협력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세부 주제로 발표·토의·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부에서는 이형목 서울대 교수 사회로 디애나 버트 미 우주작전사령부 사령관, 벤저민 람베스 미 전략예산평가국(CSBA) 선임연구원, 박상영 연세대 교수의 발표가 전개됐다. 또 2부에서는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 사회로 크리스토퍼 스톤 미 미첼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장이 발표·토론을 했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가 11월11일 오전 10시30분 부산 유엔기념공원 에서 열렸다.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를 주제로 진행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황기철 보훈처장, 그리고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폴 러캐머라 주한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및 22개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또 우리 정부 초청으로 지난 11월 8일 방한한 미국 등 7개국 참전용사·가족 41명도 현장에 함께했다. 오전 11시부터 공원 내 유엔전물장병 추모명비 앞에서 추모식이 엄수됐다. 11시 정각엔 부산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



리고 조포 21발이 발사됐다. 추모명비엔 6·25전쟁 당시 유엔군 전사자 및 실종자 4만89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추모식은 김 총리와 라미레스 부통령의 헌화, 러캐머라 사령관의 헌정사, 그리고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국제추모 행사를 처음 제안한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티니가 전우에게 바치는 시(詩) '소중한 청춘의 날' (Our Days of Precious Youth) 낭독,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영상 메시지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도 있었다.//

6·25전쟁 의료지원국 독일, 전쟁기념관 참전기념비 제막

6·25전쟁 의료지원국인 독일의 참전기념비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세워졌다.전쟁기념관은 10월 15일 이상철 전쟁기념사업회장, 미하엘 라이펜슈톨 주한독일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참전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기존까지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는 참전 국가의 희생·헌신을 추모하기 위해 6·25전쟁 참전 21개국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에 독일 참전기념비가 추가되면서 전투지원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 등 기념비는 22개로 늘어났다. 독일 참전기념비에는 참전 내용과 참전용사에게 바치는 글 '통일과



정의와 자유'가 독일어·한글로 새겨졌다. 한국에 파견된 독일 적십자 야전 병원은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24만 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했다. 6000명 이상의 출산을 도왔고, 1만6000여 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이러한 활약에도 그동안 독일은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 적십자 야전병원이 정전협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유가족 보상금 5% 수준 인상

올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5%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자(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장기복무자(10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는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훈처는 12월 29일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보훈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보고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제대군인 지원 및 국제 보훈교류협력 △존경받는 보훈 단체상(像) 정립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

신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유가족 보상금을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의 보상금 지급 상한 연령을 만18세에서 만24세로 확대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때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내년 기준 월 43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1만3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선 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6000여 명에게는 생계지원금(월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간 180일 복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운영

국방부가 2022년도 연간 약 180일을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운영한다.2022년에는 50명 규모의 시범 운용·평가가 이뤄지며, 2024년까지 6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7일 공포됐다"면서 이 같은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와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로 내년에는 약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복무 기간 1년 동안

약 180일 소집되며 일급 15만 원을 받는다. 180일을 꼭 채워 복무할 경우 연 2700만 원 가량을 수령하는 것. 근무 형태는 대부분 출퇴근으로 일일 8시간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12월 중 모집공고를 낸 뒤 내년 1~2월 선발 절차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은 국방부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오던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큰 폭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훈처 '호국영웅 보훈회관' 개관

국가보훈처(보훈처)는 12월27일 서울 강동구에서 법정 보훈단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가 사용할 '호국영웅 보훈회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감사인사, 축사, 헌관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특수임무유공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는 자체 중앙회관이 없어 각각 민간 건물을 임차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훈처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 91억 원을 지원해 2020년 9월 기존 건물을 매입했고, 새롭게 단장했다. 개



관식은 지난해 초 두 단체가 입주할 때 이뤄져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호국영웅 보훈회관은 서울 강동구 천중로 소재로 부지 600㎡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연 면적 2250㎡ 규모다. 2~3층은 6·25참전유공자회가, 5~6층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한다. 4층은 회의실과 다목적실로 구성됐다.//

제주호국원 개원

국가보훈처는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현충광장에서 국립제주호국원 개원식을 거행했다. 개원식은 '대한민국의 영웅, 한라에 오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1호 안장자'인 6·25 전사자 고(故) 송달선 하사의 안장식, 소개영상 시청, 국민의례, 헌화·분향, 공로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이뤄졌다. 보훈처는 제주호국원 개원에 따라 신규 안장자와 더불어 제주지역 충혼묘지와 개인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유해도 이상할 예정이다. 제주호국원은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



과 특유의 관습으로 육지의 국립묘지로 나갈 수 없는 제주지역 보훈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현충원 안장대상자 그리고 민주유공자까지 안장될 수 있도록 설계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다. 총사업비 505억 원이 투입됐으며 한라산 중턱 27만㎡의 부지에 조성됐다. 봉안묘와 봉안당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기존의 제주시 충혼묘지를 포함해 9개의 묘역으로 구분됐다. 참배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현충탑과 현충관, 안내동, 관리동도 함께 조성됐다.//

'FA-50 전투기' 슬로바키아 수출 추진

국산 전투기 FA-50의 슬로바키아 수출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1월 4일 "강은호 청장이 11월2일부터 4일까지 한-비셰그라드 그룹(V4,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정상회담이 열린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헝가리·슬로바키아와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5900억 원(5억 달러) 규모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KAI와 LOTN은 슬로바키아 훈련기 획득사업에 FA-50 기종이 참여하기 위한 산업협력 등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강 청장은 방문 기간 중 우리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 LOTN사(社) 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슬로바키아는 자국의 노후 고등훈련기 L-39

방사청, 한-인니 'KF-21/IF-X 공동개발' 의제 최종 합의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1월 11일 인도네시아(인니)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KF-21/IF-X 공동개발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 원(인니 20%)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양국은 인니 분담금 등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번 제6차 실무협의에는 강은호 방사청장과 인니 국방사무차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인니의 체계개발비 분담 비율(20%)과 분담금 납부 기간



(2016~2026) 등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고, 인니 분담금의 약 30%는 현물로 납부하되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인니 기술진들은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KF-21 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명예회복 위해...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국방부는 10월14일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과 특별진급은 지난 4월 13일 6·25 비정규군 보상법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정되면 1인당 1000만 원의 공로금을 받을 수 있다.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진급은 베트남전쟁 참전 장병을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 병장 공석만큼 진급 인원을 선발하는 제도 때문에 상등병으로 전역한 예비역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시행하게 됐다.

보상 신청은 공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선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 이전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등병 만기 전역자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면 복무한 군의 민원실이나 지방병무청 민원실, 국민신문고(인터넷)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강등 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특별진급에서 제외된다.//

미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시 힐크레스트 공원에 희생 미군의 이름을 새긴 '한국전 참전 기념비(Korean War Memorial)'가 세워졌다.재미동포인 박동우 기념비 건립위원회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유엔 참전 용사 국제주모의 날"이자 미국 '재향군인의 날'인 11월 11일 오후 1시(현지시간) 기념비를 제막했다"고 전했다. 오각형 별 모양으로 세워지는 기념비는 별 1개에 7500명의 희생 용사 이름을 10개 면을 따라 주(州)별, 알파벳 순으로 적어 넣었다. 총 5개의 별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한 미군 3만6593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을 비춘다. 진입로인 브레아길에는 'Korean War Memorial'이라는 대형 안내 표지석도 세웠다. 표지석 뒷면에는 기념비 건립 기부자들의 명단과 건립위 위원들의 이름을 새겼다. 기념비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 현지 동포사회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세워졌다. 총 건립 예산 72만 달러(약 7억9200만 원) 가운데 한국 보훈처가 23만7000달러(약 2억8000만 원)를 지원했다. 나머지는 한국 측 건립위원회와 현지 동포들의 모금을 통해 이뤄졌다.//

군 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월 3만~6만 원 받는다

대구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곳과 육군 5군단 사격장 등 군사격장 49곳 등 총 90곳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12월 16일 국방부는 "15일 개최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소음대책지역 90곳 지정을 의결했다"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2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 소음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할 시·군·구 안내사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보상금은 2021년분으로 군 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보상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보상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재심을 신청한 경우 12월 31일까지 지급된다.//

보훈처, 한국-콜롬비아 우호기념비 제막

국가보훈처(보훈처)는 11월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한국-콜롬비아 우호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은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콜롬비아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데 링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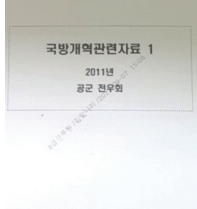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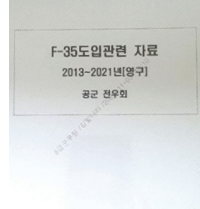
콜롬비아 부통령, 황기철 보훈처장, 주한 외교사절, 콜롬비아 참전용사 등이 참석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전투부대 참전국이다. 6·25전쟁에 연인원 5100명이 참전해 금성진격작전·김화고지전투 및 동해 보급품수송선단 호위작전 등에서 맹활약했다. 참전용사 중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이 부상했다.//

주요 역사자료 소개

이문호 (예 준장, 공사 17기, 전 공군전우회 부회장)



중요한 역사자료 2건을 소개합니다. 최근 우리 공군은 2번에 걸쳐 존립을 위협할만한 난관에 봉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공군



의 존폐가 걸려있던 '상부지휘구조개편'이라 실질적인 통합군 안이 국회통과 직전에 폐기 되었던 일과, 생산 중단을 앞둔 실체가 없었던 F-15SE가 차기 전투기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도입이 결정되었던 사안을 F-35FA 스텔스기로 반복하여 확정 한 사안입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의 주요 원인이 지휘구조의 문제로 오판하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로 하여 현역의 입을 막고 입법화하고자 하였던 사업이었으나, 공군전우회가 주도하여 해군과 육군의 뜻있는 인사들과 함께 입법을 저지한 사건입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공군이 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를 원했으나 값이 싸다는 이유로 소요 군인 공군과 국방부 합참의 의견이 소외된 채 방사청과 기획재정부가 기종을 결정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또한 공군

전우회가 주관이 되어 역대총장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여론화되어 우리 공군이 원한대로 스텔스기인 F-35A가 도입되었습니다.

공군 전우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던 사항 등 500여 페이지에 달한 상부지휘구조개편 정책결정과정을, 차기전투기 사업은 역대공군참모총장 회의록, 대통령 건의문, 대 언론활동 등 구체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공군역사기록단에 보냈고, 공군역사기록단은 이를 재 구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의사결정에 도외시 된채 지휘구조개편이나 기종결정 등은 앞으로도 끊임 없이 반복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들은 물론 군사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공군본부 존안자료 1부를 공군전우회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안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보유한 세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서해바다에 가라앉았다더라면 우리군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기체인양이나 블랙박스 수거를 위해 숨가쁜 전쟁을 했을겁니다. 만약 기체를 적진이 가져갔더라면... 상상만해도 아찔합니다.

F-35 동체착륙은 세계최초입니다. 전세계 군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전투기조종사의 기량 답력 애국심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조종사도 영웅이고 동체착륙 준비에 수고한 제20전투비행단 장병들 역시 영웅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자랑스롭습니다.//

'뉴 스페이스'와 우주공군

안재봉 (예 준장, 2사 5기, 연세대 ASTI부원장)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민간 우주탐사기업 블루오리진

2025~2030년 사이 우주공간에서 최대 10명이 함께 일하고, 놀고, 생활할 수 있는 다목적 비즈니스 파크(Orbital Reef)를 띄우겠다고 지난 10월 25일 밝혔다. 21년전 베이조스가 블루오리진 창립 당시 내세웠던 '지구를 오염산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우주식민지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주에서의 화물운송, 호텔, 영화제작, 우주관광 등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정거장이 될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개발을 하는데 있어 과학기술 발전과 군사목적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목표를 세우고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초고속 우주인터넷 통신, 우주여행과 같은 상업적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 뉴스페이스로 우주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미 모건스탠리는 현재 3500억 달러 규모인 민간 우주산업이 2040년에는 1조 달러(1165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5월,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2027년까지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11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중인 인공위성들을 우주로 발사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 ADEX 21에서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들이 보여 준 우주 관련 전시물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화시스템 등 한화방산계열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은 금번 방산전시회에서 우주발사체, 광학 및 통신위성, 초소형위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등을 전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때마침, 공군은 걸프전 이후 1990년 초부터 추진해 왔던 우주력 건설과 우주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우주공군'을 목표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군은 지난 8월 미 우주군과 우주정책협의체 운영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9월에는 국내 민간 우주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군우주력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 1일에는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신설하였다. 지난 '서울 ADEX 21'기간 중에는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한 국방우주력 강화와 공군이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군조직법 개정 등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뉴스페이스시대에 발맞춰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국내 방산기업과 국방우주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군의 노력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면서, 머지않아 국내 기업이 글로벌 우주기업으로 성장하고 공군은 '우주공군'으로 자리매김 될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우주여행을 민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합류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국내 방산기업들의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11월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발사를 계기로 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F-35전투기 동체착륙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공군전우회 정책자문위원)



공군전투기 F-35가 공군서산기지에 동체착륙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청년장교 시절 C-123 수송기가 동체착륙하는걸

습속이며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단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는데 기지로 귀환하던 비행기 착륙기어가 작동되지 않아 바퀴없이 동체착륙하는 상황이 발생된겁니다. 작전부장이 조종사에게 비상착륙절차를 지시하고 활주로는 소방차가 출동하여 소화거품(foam)을 두텁게 뿌리고 군의관과 앰블런스차량이 대기하고...

그동안 군용기는 착륙시 폭발이나 화재에 대비해서 항공유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 부대와 인근 바다 상공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조종사관사에서 조종사 부인들도 앞마당에 나와 습속이며 하늘을 쳐다보고 초긴장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동체착륙준비가 끝나자 작전부장이 조종사에게 착륙지시를 내렸습니다. 붉은 석양을 배경으로 활주로에 진입하는 군용기를 보고 있자니 저도 주먹에 땀이 나더군요. 저는 당시 비행단장 부관을 하고 있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하강하다가 착지직전 그대로 고도를 올려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비행기를 바퀴없이 땅에 착륙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거나 뒤집어 지기도 하고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동체착륙시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날따라 김해상공은 그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착륙직전 다시 이륙하여 석양을 배경으로 선화비행하자 작전부장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야 자식이 정신차려 !! 명령이행 안할 거야”

다시 착륙지시가 떨어졌고 수송기는 계속 고도를 낮추더니 활주로에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체와 활주로의 마찰로 몇 미터나되는 불꽃이 꼬리처럼 이어졌습니다. 계속 미끄러지던 수송기는 활주로를 약간 벗어나 무사히 잔디밭에서 정지했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호차, 앰블런스, 지휘차량, 헌병백차등이 비상착륙한 수송기로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조종사 두명이 내렸지요. 서로 와락 끌어안을 줄 알았는데 젊은 조종사 두명은 내리자마자 줄을 맞춰서더니 '필승'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김해상공 붉은석양을 배경으로 빙빙 선화하던 군용기의 모습이 제 머리속에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동체착륙시 길게 뻗어나오던 불꽃 그리고 육지에 내려 거수경례하던 조종사들의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들이 영웅이고 애국자입니다.

이번 동체착륙한 군용기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입니다. 착륙시 충격과 위험성이 수송기와는 또 다릅니다.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조종사가 비행기는 바다로 향하게 하고 비상탈출했다더라면 일단 목숨을 건졌을겁니다. 생명이 소중하니 이것도 중요한

행복 습관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0기, (주)토브넷회장)



우리는 새해가 되면 어떻게 행복한 해를 살아갈 가를 다짐하고 각오를 다진다. 행복은 습관이다. 우리는 지

나온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삶을 허비한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작은 속삭임에도 일희일비(一喜一悲)한다.

우리 삶은 마음이 지옥이고 마음이 극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 가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한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된

다.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습관이 생겨 우리 운명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우리 삶도 행복하게 바뀐다. 오늘을 불평하면 내일도 불평하게 되고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크게 변한다.

우리 인생은 마치 적금통장(積金通帳)과 같이 우리가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쌓으면 꺼내 쓸 복이 많이 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잘 안 풀릴 때는 전생 또는 그전 생애 마이너스 통장에서 미리 꺼내 쓴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복을 저축해야 한다. 복은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은 짓고 저축해야 한다. 그 복이 우리 삶에 행복의 원천이다.

우리가 갖는 행복은 크게 네 가지로 첫번

째는 소유하는 행복, 두 번째는 재물을 누리는 행복, 세 번째는 빚(負債) 없는 행복, 네 번째로 비난 받을 일 없는 행복이 있다.

첫 번째로 소유하는 행복이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감을 느낀다. 이는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었을 때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 노력이나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복권 당첨과 같은 요행(僥倖)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모으게 되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길버트 교수에 의하면 “복권1등 당첨된 사람들의 95%가 복권 당첨 이전보다 불행해 졌다”고 한다. 이는 복권 당첨으로 “분에 넘치는 행운을 주체하지 못하고 돈을 몰 쓰듯 펄펄 쓰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 이야기다. 횡재(橫財)는 조심해야 한다. 나머지5%는 요행으로 번 돈을 자선단체를 통해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기부함으로써 자기의 횡재를 자기 성찰과 배려로 다가를 불행을 잘 막은 사람들이다. 결국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두 번째로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다. 아무리 귀한 재물이라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도 못한다. 오직 모으고 지키느라 매일 걱정만 하다가 본인은 인색하게 살다가 죽음과 함께 귀한 재물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안다. 우리가 재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베푸는 데서 오는 행복이다. 샘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낸다고 물이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재물을 베풀면 베푼 만큼 훨씬 더 많이 모이게 되고 베푼 공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는 빚 없이 사는 행복이다. 요즘은 크든 작든 빚 없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돈의 빚만 아니라 마음의 빚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빚을 갚아야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된다. 재물의 빚을 진 사람에게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의 빚을 진 사람

에게는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 함으로서 마음속에 늘 남아 있는 근심 걱정으로 가슴에 돌덩어리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불안감이 없어져야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는 남에게 비난 받을 일 없어야 행복하다. 일생 동안 남에게 비난 받지 않고 살기는 참 힘들다. 남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말·생각’ 등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무엇보다 남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남을 비난하면 그것이 곧바로 나를 향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신이 남에게 비난 받기 싫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각자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미소 짓는 화안어어(和顔愛語), 즉 언제나 부드럽게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맞이해 상냥한 말씨로 남을 대하면 남에게 비난 받지 않는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한가지를 더한다면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완화되면서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필자도 대한적십자사 시니어봉사단원으로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복 습관을 만들어 감으로서 행복해진다.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얻어진다. 우리가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해준다. 우리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남에게 베풀며 마음의 빚을 없애고 화안어어(和顔愛語)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幸福) 습관(習慣)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로, 20대20킬로, 그렇게 60대가 되면 60킬로의 속도로 느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새삼 절실하게 다가온다. 어릴 적 질척대기만 하던 시간의 흐름이 어느덧 ‘햇살 같은’ 세월의 속도로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결코 똑같지 않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공평하게, 한 번은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죽게 되는 궤도에 오르게 된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던 한해를 떠나보내고, 예외 없이 또 다른 한해를 맞이했다. 건강의 소중함이 큰 시기였기에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더 가족과 지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인생은 인생만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영화 ‘카페 소 사이어트’에서 등장하는 대사로 아무리 철저히 계획한다 해도 인생은 결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뜻한다.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루할 틈 없이 매일이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괴로움의 연속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2년간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후자의 경험을 뼈저리게 했을 것이 분명하다. 전 세계를 뒤흔든 전염병이 우리를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전환점을 다시 앞두고 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쩔 희망이 안 보이는 세상일지도 모른다. 불안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불확실한 인생이라도 그저 손 놓고 낙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게 현실이다. 대신 낙관적인 희망은 가져볼 법하다. 언제나 해답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 마련이니까. 이는 필자가 오랜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마치 소설 속 인류가 뜻하지 않는 역병에 공격을 받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한 거대한 어떤 힘이 의도치 않은 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자 하는 아주 작지만, 간절한 바람에서 발현된다. 한 해를 떠나 보내면서 스스로 선택에 대한 후회나 미련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진 않았을 텐데, 더 나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된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다보면 그런 막연한 미련으로 힘들어 할 수도 있다.

한 때 필자가 공무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국장(局長)도 되고 경위에 따라서는 시장(市長)도 될 수 있었는데, 하며 아쉬워한다. 그러나 틀 안에 갇혀 있는 공무원 생활을 일찍 벗어났기에 더 넓은 세상에서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갖게 되

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경비행기조종사, 연극배우, 화가, 오페라 가수, 합창단, 시인, 칼럼니스트로 활동도 하고, 교수 생활도 했다. 신문기자로서 외국도 38개국을 다녔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알았다. 물론 힘든 선택을 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으로 안주했다면 이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계획하기에 앞서 내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그 당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렇게 했기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시간을 잘 활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70에 이르러 느낀 것은 인생이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 하나를 포기하면 또 다른 하나를 얻게 된다는 것. 따라서 경험을 통해 얻는 배움도, 체험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늘 오늘부터라는 도전 정신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머뭇거리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지만 잡을 수도 없다. 한 생(生)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말해 줄 사람이 있었는가”, “자신은 누구인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가” 마치 많은 이들이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 당연하다고 여겨오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한다.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잠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을 터득하지만 늘 그랬듯 ‘자식삼일’.

우리의 삶이란 아무런 약속 없이 찾아온 선물이자, 아무 예고 없이 어느 순간 가버릴 수도 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신축년 마지막 달 12월이 별 희망도 남기지 않은 채 무심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솔직히 침울하고 걱정스런 겨울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싶다.

새가 숲속에 있을 때 극락인줄 모른다. 그러나 새장에 갇히면 비로소 숲속이 극락인줄 알게 된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행복과 미래를 찾으려 하지 말자. 지금 내가 밭 딛고 서있는 이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침울하고 막막한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환경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너무 무겁게 살지 말자. 그래서 행복한 공간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 삶의 기쁨을 음미하면서 살아봄이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공군 전우들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어느 해보다도 더 사랑을 그리워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켜보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한해를 맞이하자

안호원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칼럼니스트, 시인)



열두 달 가운데 맨 끝 달인 12월의 마지막 달력을 떼면서 한 해가 지나감이 이렇게 빠른가 싶다. 그러면서도 한 해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입과 코를 가린 채 본의 아닌 영어(囹圄)의 삶을 살다보니 삶의 의미마저도 잊은 채,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이맘때면 누구나 한 걸 같이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새해의 미래를 설계하는 꿈에 들떠 있다. 12월 마지막 날 남산에서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탄복하기도 했지만, 이내 곧 숙연해지며 마음 한 구석엔 무엇인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해가 바뀌었다고 모두들 들뜬 마음이지만, 일출과 일몰의 장엄한 광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단지 시간만이 흘러갔을 뿐이다.

시간과 관련 된 불교용어 중에 ‘찰나(剎)

那)’와 ‘겁(劫)’이 있다. 이 낱말들의 본디 뜻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찰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순간(瞬間)을 의미하는 ‘크샤나’의 음역으로 1찰나가 75분의 1초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눈 깜빡할 새’가 더 실감나고 애교스럽다. 반면에 ‘겁’은 산스크리트어의 ‘겁파’에서 음사된 것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겨자 씨’ ‘바위’의 비유가 동원되기도 한다. 일례를 들자면 1겁은 대략 ‘잠자리 날개보다 얇은 천으로 둘째가 사십 리나 되는 바위를 3년에 한번씩 스쳐서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한다. 가히 ‘억겁’ 혹은 ‘영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의 시간, 그 무한함을 말한다.

어릴 적에는 시간의 흐름이 더디기만 했다. ‘언제 커서 어른이 되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실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하루, 한 주일, 한 달, 한 해를 보내면서 졸업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듯 육십갑자 한 바퀴 돌아 맞이하는 칠순의 나이가 되니 ‘시간은 10대에게 시속10킬

2022년 호랑이의 해, 한국의 운명

염동용 (예 중위, 학사75기, 전 공군부경장교회 회장, 정치학 박사)



국조 단군께서 나라를 개창하신 이념은 승 일연의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곧 “홍익인간 제세이화(弘益人間 制世理化)”이다. 널리 세

상을 이롭게 하며, 미사일이나 탕크, 핵무기와 같은 무력이 아니라 이성과 과학, 문명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어떤 절의 일주문에 들어섰을 때 있는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동방지국천왕이 용의 목을 누르는 괴력난신이 아니라 음악과 예술을 뜻하는 비파를 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치이

다. 곧 한국인의 원형은 홍익인간이고, 미래의 한국인은 이성과 도덕으로 교화하며 널리 세계를 문명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스라엘인은 아브라함 이래 여호와께서 짓고 끌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란 믿음을 수천년간 지켜왔다. 나치의 박해와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대량학살 속에도 희망으로 그들은 버텨나갔다. 이러한 시온니즘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낳았고, 1948년 전쟁, 1967년 전쟁, 1973년 전쟁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아랍세계와의 대결에서 그들은 보이는 세계의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신과의 믿음을 지켜나갔다.

독일의 이념은 니벨룽겐의 노래에 잘 나와 있다. 지그프리트는 거대한 용을 퇴치하고 북극의 여왕을 정복하고 드디어 세계정복에 나서서 동방의 아틸라와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 독일인의 운명은 니벨룽겐의 예언과 소름 끼치게 일치하였다. 나치는 프랑스와 영국 등에 의한 베르사이유 조약이란 용을 물리치며,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쪽을 정복하고서 동방의 소련을 침략하였다. 스탈린의 소련과 레닌그라드, 모스크바전투에 이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등에서 역사상 최악의 사투를 벌이며, 수천만 명의 희생 끝에 히틀러는 자살하였고 독일 제3제국은 멸망하였다. 1945년 베를린을 둘러싼 마지막 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방어선의 이름은 예언 그대로 지그프리트 라인이었다.

중세 남미의 인디언들도 세상 끝나는 날 그들은 하얀 신에 의하여 멸망 당할 것이란 예언을 믿었다. 스페인의 피사로 일당이 총을 들고 말을 타고 나타났을 때 말을 탄 백인과 총을 본 적이 없던 그들은 머리가 두 개인(말과 인간의 머리가 두 개이다) 하얀 신이 천둥을 치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였다. 절망한 그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썩어버린 그들 수백 만의 몸 위에 천연두(smallpox)가 곰팡이처럼 피어올랐다. 정복자 피사로 일당이 잉카제국의 수도에 왔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천연두와 수십만의 시체였다.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믿는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올해는 호랑이의 해, 무서운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멀리서 폭풍우가 밀려와 선원과 승객들은 격랑 속에 내동댕이쳐지고 한국은 1912년의 타이타닉호 같이 침몰할지도 모른다. 1997년의 외환위기같이, 한국호는 퍼펙트 스톱의 한 가운데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리스, 베네주엘라의 운명이 한국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국가 부채가 쌓여 나가고 국가신용등급이 격하되면 외국자본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국가는 부도 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약 4600억 달러는 전 세계의 유동자금 수십조 달러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 비상시 구명줄이 될 미국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2021년 12월 31일로 끝이 났다.

2022년은 임인년, 호랑이의 해이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 늦었지만 제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의 망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제대로 돌아보아야 한다. 국가간의 신의를 훼손하고 자유진영을 실망시킨 과거의 부끄러운 일탈을 반성하고, 이제는 국조(國祖)의 건국이념을 좇아 인간을 존중하며,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국가로 돌아서야 한다. 높아져 가는 대만해협의 파고 속에서 국제법과 항해의 자유를 지켜나가고, 한미동맹을 중핵으로 자유세계와 함께 전제주의에 맞서며 인류 문명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결국 수메르(Sumer)문명이라 수천년의 인류역사가 증명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좌우하며, 꿈꾸는 대로 세상은 이루어진다. 2022년은 한국인이 선거를 통하여 그 운명과 세계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한 해이다.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모아나가고, 부정선거를 막아내며 공명한 선거로 그들의 자유를 지켜나갈 때, 그리고 그 결과 거짓과 위선, 부패와 탐욕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 한국인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서 문명과 번영으로 21세기의 세계를 호령해나갈 것이다.//

를 통해 얻은 전문지식, 감리와 회계, 설계는 물론 군인정신이었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늘 군에 감사하고 언젠가는 군과 모교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전역하는 후배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길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그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그의

성공기가 전역을 앞둔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공군이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의 값진 성공담을 공사 총동창회 성무지에 기고할 것을 흥대표에게 권하면서 헤어졌다. 전역한 후 역경을 딛고 사회에서 성공한 동문을 만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다.//

계룡산 종주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공군의 구호는 ‘필승’이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구호다. 그것은 당연한 군인의 자세이기도 하다. 공군에서 36년 2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정년퇴직한 세월이 17년이 넘었는데도 요즈음까지 반가운 친구나 후배들을 만나면 처음 인사가 ‘필승’이다.

공군본부가 서울을 떠나 1989년 7월 9일 계룡산 자락으로 이전하고, 부대원들의 생활환경도 변화를 가져왔다. 환경의 변화는 첫째 타군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공군 특유의 생활방식들이 잠식되어 갔으며, 둘째는 서울이라는 복잡한 도시의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환경 속에 살게 된 것이다. 하루의 일과도 육·해·공이 모두 달랐으나, 점진적으로 맞춰나갔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매주 수요일 오후는 계룡대 근무하는 전원이 체력단련의 시간이었다. 삼군본부의 본청이 업무가 없으므로 예하 지원부대들도 당연히 체력단련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단체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옆에 있는 계룡산 등산이 제격이었다. 각급 부대단위별로 수요일 오후에는 계룡산 천왕봉을 중심으로 오르는 등산코스를 따라 등산을 했다. 계룡산의 오후는 일반 등산객들과 군인들이 함께 어울려 계룡산 골짜기는 시끌벅적 그 자체였다.

원이 많은 다른 대대에서 빌려왔다. 체육대회 중에 힘든 계룡산 종주종목에는 장병 누구나 참가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여군무원을 빌려오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따랐다. 특히 등산을 싫어하는 여군무원들이 많아 여간 힘든 선발이 아니었다.

계룡산 종주대회를 하는 날에는 의무반과 식수지원을 위한 요원들이 계룡산 금잔디고개를 중심으로 중간 중간에 배치되었다. 대대별 자존심이 걸린 대회라 무리한 질주 때문에 선수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했던 1970년에도 생도들의 훈련과 정인 관악산 돌과훈련 중에 생도 1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젊음의 집단인 군인들에게 경주란 위험한 요구일수도 있다. 그러나 군인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갖추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필승의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군인정신의 기본이기 때문에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는 훈련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계룡산 종주대회 날 신원사 앞에서 시차를 두고 출발하는 대대별 선수들은 낙오 없이 종주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속도를 조절하며 오른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경쟁심은 대원들의 인내를 깨뜨리고 만다. 숨을 헐떡이며 돌계단을 뛰어오르다 처음 나오되는 것은 여군무원이다. 여군무원을 두고 가면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순위에서 탈락이다. 그래서 힘이 좋은 의장대대는 아예 중간지점부터 여군무원을 몇몇이 메고 달린다. 모두 하체가 부실한 우리 수송대대는 도저히 우승을 할 기회가 없다. 우리는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종주의 의미로 참가하는데 목적이 되어버린 계룡산 종주대회에서 우리는 항상 꼴찌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필승’이었다. 온몸이 땀에 젖고 입에 거품을 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돌계단을 달렸다.

가을빛이 계룡산천왕봉에서부터 매일 산기슭을 따라 밑으로 내려오는 계절이면 계룡산 종주의 날이 자주 떠오른다.//

자랑스러운 공군인을 소개합니다

이문호 (예 준장, 공사 17기, 전 공군전우회 부회장)



제주도에 여행하던 중 우연하게 자랑스러운 공군인을 만났다. 서귀포시에서 터를 잡은 주식회사 강울 대표이사 홍인식(공사39기) 예비역 중령이다. 그가 운영하는 타운하우스 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가 어떻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배경으로 두고 짓고 있었고, 미국에서 수입한 목재를 꼼꼼히 엮어 짓는 목조 전원주택으로, 3차까지 성공적으로 분양하고 현재 4차 20채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가 성공한 비결은 시행, 시공, 분양 및 인사관리까지 모두 직접 운영하면서 책임 있는 시공과 엄격한 관리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있었고, 최고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구전을 통해 그의 타운하우스는 명품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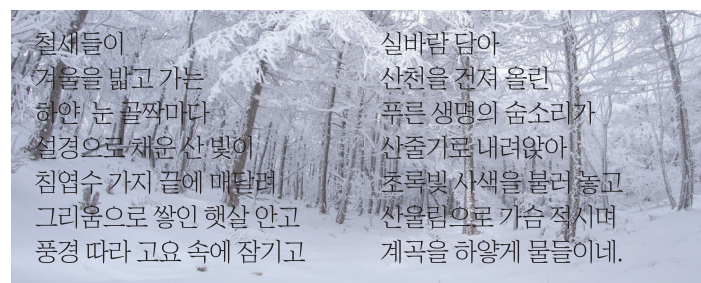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고객 감동경영이었다. 그는 아침 7시부터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있었다. 하루도 체불하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게 되니 본토에서 온 목조 건축 전문가들이 그의 결을 든든하게 지켜 주었고, 일 년에 한 번 직원들을 외국여행을 시켜주는 등 복지도 꼼꼼하게 챙겼다고 한다.

그가 짓고 있는 타운 하우스는 한라산을

그는 군에서 능력만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군을 원망해 본 적이 없고 관리업무

겨울풍경

강상률 (예 준위, 전문경지회장)



철새들이 겨울을 났고 가는 하얀 눈 끝까지 다 설경으로 채운 산빛이 짐엽수 가지 끝에 매달려 그리움으로 쌓인 햇살 안고 풍경 따라 고요 속에 잠기고

실바람 담아 산천을 건져 올린 푸른 생명의 숨소리가 산줄기로 내려앉아 초록빛 사색을 불러 놓고 산울림으로 가슴 적시며 계곡을 하얗게 물들이네.

